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¹⁾

하형석, 황진구, 최인재, 한지형, 진인범

요약

- 조사목적** ▶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
- 조사대상** ▶ 원패널-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초4 코호트 2,607명), 중학교 1학년(중1 코호트 2,590명)
- ▶ 원패널의 보호자- 5,000여명(각 코호트별 2,500여명)
- ▶ 원패널의 형제자매- 2,000여명(각 코호트별 1,000여명)
- 조사항목** ▶ 원패널 / 원패널의 형제자매 : 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신체발달 등), 발달환경(매체, 활동/문화 환경, 학교, 가정, 직장 등), 스페셜 모듈(2024년: 결혼/출산관, 시간 선호, 용서하는 성향)
- ▶ 보호자 : 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개인 특성(사회/정서/역량, 매체, 신체 등),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가정, 교육 등), 스페셜 모듈(2024년: 결혼/출산관, 시간 선호, 용서하는 성향)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기간** ▶ 매년 8월 ~ 11월

1) 본 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년도 고유과제 보고서인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1 2024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패널데이터 구축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이하 KCYPS 2018) 제7차년도 실시 결과, 초4 코호트는 2,123명(원패널 유지율 81.4%) 조사가 완료되었고, 중1 코호트는 2,073명(원패널 유지율 85.9%) 조사가 완료됨
- 초4 코호트는 직전년도 제6차년도 원패널 유지율인 86.0%(2,243명) 대비 약 4.6%p 하락하였고, 중1 코호트는 직전년도 제6차년도 원패널 유지율인 85.8%(2,221명) 대비 약 5.8%p 하락함
- 제7차년도 조사는 초4 코호트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시기이며, 중1 코호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대학생 등)이 된 시기로, 이러한 학교급 변화와 생애주기 전환 등 패널의 내적 변화 요인이 유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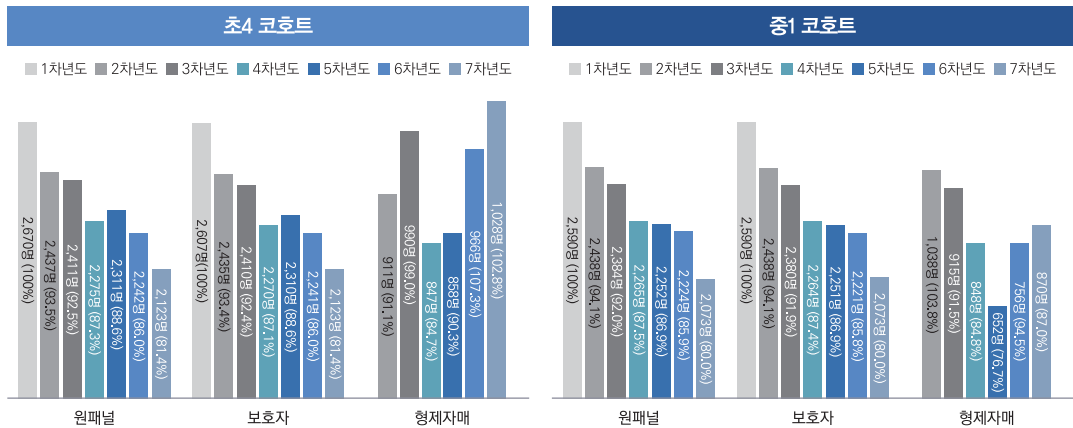


그림 1 KCYPS 2018 제1차년도~제7차년도 데이터 구축

- KCYPS 2018 제1차년도 조사부터 제7차년도 조사까지 구축된 패널의 패널유지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유지 패턴을 몇 가지로 구분함
 - 유형 A 및 유형 B~G: 유형 A는 모든 조사 차수(제1차~제7차)에 응답한 유형이고, 유형 B부터 유형 F까지는 일정 조사 차수까지는 유지되다가 이후 완전히 패널에서 이탈하는 일반적인 유형
 - 유형 H: 학교급 전환기에 일시적으로 조사에 실패했다가 복귀 후 다시 학교급 전환기에 이탈한 유형
 - 유형 I: 청소년이 대상인 패널의 특징인 학교급 전환기에 패널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여 지속적으로 응답을 유지한 유형
 - 유형 J: 일반적인 패널의 특징인 제2차년도 조사에서 이탈했다가 이후 다시 복귀하는 유형
 - 유형 K: 조사시점의 외부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사를 거절 또는 실패하였다가 이후 다시 복귀한 유형
 - 유형 L~O: 최근 2년 동안의 조사 성공과 조사 실패의 가능한 4가지 경우의 수를 기준으로, 중간에 무작위적 조사성공과 조사실패가 일어나는 유형으로 구분

- 원패널의 패널유지 패턴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조사 차수에 지속적으로 응답한 유형 A의 패널은 3,639명(70.0%)으로 나타났으며, 일정 조사 차수까지는 유지되다가 이후 완전히 패널에서 이탈하는 일반적 유형인 유형 B에서 유형 G의 비율은 약 2.0%~3.5%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학교급 전환기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복귀 후 다시 학교급 전환기에 이탈하는 유형 H는 20명(0.4%)으로 확인되었으며, 첫 번째 학교급 전환기 이후 복귀형(유형 I)은 176명(3.4%)으로 나타남
- 제2차년도 조사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가 다시 복귀한 유형 J는 91명(1.8%), 코로나19 시기 일시 이탈 후 복귀형(유형 K)은 63명(1.2%)으로 나타남
- 무작위적 조사성공과 조사실패가 반복되는 유형 L에서 유형 O는 총 323명(6.2%)으로 나타남

표 1 원패널 패널유지 패턴별 조사 결과

(●: 조사성공 / ○: 조사실패, 단위: 명, %)

유형	전체 코호트(초4 코호트 + 중1 코호트)								패널수 (명)	비율 (%)
	제1차년도 (2018년)	제2차년도 (2019년)	제3차년도 (2020년)	제4차년도 (2021년)	제5차년도 (2022년)	제6차년도 (2023년)	제7차년도 (2024년)			
유형 A	●	●	●	●	●	●	●	3,639	70.0	
유형 B	●	●	●	●	●	●	○	309	5.9	
유형 C	●	●	●	●	●	○	○	122	2.3	
유형 D	●	●	●	●	○	○	○	91	1.8	
유형 E	●	●	●	○	○	○	○	101	1.9	
유형 F	●	●	○	○	○	○	○	110	2.1	
유형 G	●	○	○	○	○	○	○	152	2.9	
유형 H	●	●	●	○	●	●	○	20	0.4	
유형 I	●	●	●	○	●	●	●	176	3.4	
유형 J	●	○	●	●	●	●	●	91	1.8	
유형 K	●	●	○	●	●	●	●	63	1.2	
유형 L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122	2.3	
유형 M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46	0.9	
유형 N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105	2.0	
유형 O	●	무작위적 조사성공/실패				○	○	50	1.0	
계								5,197	100.0	

- KCYPs 2018 원패널의 보호자와 원패널의 형제자매는 원패널 유지 및 조사 성공 시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원패널의 보호자는 원패널과 1:1 매칭을 목표로, 원패널의 형제자매는 해당 조사 차수에 배당된 인원을 목표로 조사가 진행됨
- 제1차년도부터 제7차년도까지 총 5,852명의 보호자가 응답하였으며, 이는 원패널 수(5,197명)보다 다소

많은 수준으로, 일부 조사 차수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대로 응답하거나 동일 가구 내 응답자가 변경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응답 지속 패턴을 살펴보면, 7회 모두 동일인이 응답한 보호자는 3,170명(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6회 응답자는 906명(15.5%), 5회 391명(6.7%), 4회 269명(4.6%), 3회 255명(4.4%), 2회 329명(5.6%), 1회 532명(9.1%)으로 나타남
- KCYPs 2018 보호자 데이터는 동일 개체의 반복 응답이 누적된 형태로, 자녀의 성장 과정과 보호자의 사회·정서적 변화를 동반 추적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로서의 특성을 가진. 조사 내용 또한 자녀의 발달 배경뿐 아니라 보호자 개인의 심리·정서, 건강, 미디어 이용, 직업 및 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 세대의 생활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을 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임
-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는 형제자매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원패널 및 보호자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 추가로 진행되며, KCYPs 2018 제2차년도부터 조사에 포함됨
- 형제자매 조사는 참여의 불규칙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특정 연도에 응답 후 불참하거나, 이전에 불참했던 대상이 이후 조사에 복귀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제2차년도부터 제7차년도까지 총 3,205명의 형제자매가 응답하였으며, 이 중 6회 모두 동일인이 응답한 형제자매는 562명(17.5%), 5회 457명(14.3%), 4회 501명(15.6%), 3회 517명(16.1%), 2회 397명(12.4%), 1회 771명(24.1%)으로 나타남
- 형제자매 데이터는 동일 개체의 반복 응답 비율은 낮지만, 원패널과 동일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넓은 연령대를 포괄하는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 구조로 활용 가능함
- 원패널의 보호자 조사가 세대 간 연결성을 가진 성인 패널데이터의 성격을 지닌다면, 형제자매 조사는 가구 내 다자녀 발달 비교와 가족 내 상호작용 분석이 가능한 확장형 아동·청소년·청년 패널데이터로서의 의의를 지님

표 2 원패널의 보호자/형제자매 동일 개체 응답 유형

(단위: 명, %)

동일 개체 응답 횟수	원패널의 보호자(제1차~제6차)		원패널의 형제자매(제2차~제6차)	
	응답자 수(명)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7회	3,170	54.2	—	—
6회	906	15.5	562	17.5
5회	391	6.7	457	14.3
4회	269	4.6	501	15.6
3회	255	4.4	517	16.1
2회	329	5.6	397	12.4
1회	532	9.1	771	24.1
계	5,852	100.0	3,205	100.0

2 KCYPS 2018 제7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²⁾³⁾

■ 개인발달 - 생활시간 - 하루일과

- 평일 및 주말의 평균 수면시간을 살펴보면, 초4 코호트는 (평일) 6.94시간, (주말) 8.53시간, 중1 코호트는 (평일) 7.43시간, (주말) 8.70시간으로 나타남
- 조사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4 코호트보다, 이미 성인기로 진입한 중1 코호트의 수면시간이 평일과 주말 모두 더 길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p<0.01$)

표 3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평일/주말)

구분	n	수면시간(평일)		수면의 질(평일)		수면시간(주말)		수면의 질(주말)	
		M	SD	M	SD	M	SD	M	SD
전체	4,196	7.18	1.14	3.00	0.64	8.61	1.40	3.26	0.57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6.94	1.04	2.95	0.66	8.53	1.37	3.26	0.57
중1 코호트	2,073	7.43	1.19	3.06	0.62	8.70	1.42	3.26	0.57
t		-14.145***		-5.696***		-3.938***		0.527	

*** $p<0.01$, ** $p<0.05$, * $p<0.1$

■ 개인발달 - 지적발달 - 학업태도

- 학업태도는 크게 '학업 열의'와 '학업 무기력'으로 조사되는데, 학업 열의(전체)는 초4 코호트 2.40점, 중1 코호트 2.49점으로 중1 코호트가 초4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p<0.01$)
- 학업 열의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헌신(초4 2.74점 → 중1 2.80점), 활기(2.33점 → 2.44점), 효능감(2.28점 → 2.37점), 몰두(2.35점 → 2.42점) 등 모든 요인에서 중1 코호트가 초4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임($p<0.01$)

2) 주요 조사 결과에 사용한 관측치 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통계량(t)는 제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로, 성별 부분집합 관측치 n은 실제 성별 조사원료 총수와 다를 수 있음

3) 조사항목을 구성하는 문항 중 역코딩이 필요한 문항(ex, 자아존중감 10문항 중 4문항, 스마트폰 의존도 15문항 중 3문항 등)에 대해서는 역코딩하여 결과값을 산출함

표 4 학업 열의

구분	n	학업열의(전체)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74	2.44	0.48	2.76	0.55	2.38	0.58	2.32	0.57	2.38	0.57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40	0.48	2.74	0.54	2.33	0.57	2.28	0.58	2.35	0.56
중1 코호트	1,551	2.49	0.49	2.80	0.55	2.44	0.58	2.37	0.56	2.42	0.57
t		-5.225***		-3.337***		-5.872***		-4.725***		-3.490***	

*** p<0.01, ** p<0.05, * p<0.1

- 학업 무기력(전체)은 초4 코호트 2.07점, 중1 코호트 1.97점으로, 중1 코호트의 학업 무기력 수준이 초4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p<0.01)

표 5 학업 무기력

구분	n	학업무기력(전체)		통제신념 결여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74	2.03	0.48	2.08	0.55	2.03	0.56	2.02	0.54	1.98	0.57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07	0.48	2.11	0.55	2.08	0.56	2.06	0.54	2.02	0.58
중1 코호트	1,551	1.97	0.47	2.03	0.55	1.96	0.55	1.97	0.53	1.91	0.55
t		6.524***		4.219***		6.890***		5.069***		5.678***	

*** p<0.01, ** p<0.05, * p<0.1

■ 개인발달 - 진로 - 진로적응력

- 진로적응력(전체) 평균은 초4 코호트 2.72점, 중1 코호트 2.89점으로, 중1 코호트의 진로적응력이 초4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p<0.01)
- 하위요인별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어, 진로 관심(초4 2.74점 → 중1 2.88점), 진로 호기심(2.69점 → 2.88점), 진로 자신감(2.73점 → 2.91점) 모두 중1 코호트가 초4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임(p<0.01)

표 6 진로적응력

구분	n	진로적응력(전체)		진로 관심		진로 호기심		진로 자신감	
		M	SD	M	SD	M	SD	M	SD
전체	4,196	2.80	0.54	2.81	0.61	2.79	0.59	2.82	0.59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72	0.54	2.74	0.62	2.69	0.58	2.73	0.59
중1 코호트	2,073	2.89	0.52	2.88	0.59	2.88	0.58	2.91	0.56
t		-10.473***		-7.968***		-10.357***		-9.653***	

*** p<0.01, ** p<0.05, * p<0.1

개인발달 - 사회/정서/역량 발달 -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 사회·정서·역량 발달 중영역의 주요 요인인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각각 2.55점, 2.98점, 2.88점으로 나타남
- 코호트별로는 삶의 만족도(초4 코호트 2.57점 → 중1 코호트 2.54점)와 행복감(초4 코호트 2.99점 → 중1 코호트 2.96점)이 모두 초4 코호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p<0.05~0.01), 자아존중감(초4 2.88점, 중1 2.88점)은 두 코호트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7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구분	n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M	SD	M	SD	M	SD
전체	4,196	2.55	0.50	2.98	0.37	2.88	0.42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57	0.50	2.99	0.38	2.88	0.42
중1 코호트	2,073	2.54	0.50	2.96	0.36	2.88	0.42
t		1.980**		3.163***		-0.678	

*** p<0.01, ** p<0.05, * p<0.1

■ 개인발달 - 사회/정서/역량 발달 - 정서문제

- 정서문제는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평균은 주의집중(2.04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위축(2.03점), 신체증상(1.82점), 공격성(1.81점), 우울(1.74점) 순으로 나타남
- 코호트별로는 주의집중(초4 2.08점 → 중1 1.99점)과 공격성(1.86점 → 1.77점) 등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초4 코호트가 중1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p<0.01), 신체증상·사회적 위축·우울에서도 초4 코호트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표 8 정서문제

구분	n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4,196	2.04	0.54	1.81	0.54	1.82	0.54	2.03	0.66	1.74	0.53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08	0.54	1.86	0.54	1.85	0.53	2.05	0.65	1.77	0.53
중1 코호트	2,073	1.99	0.53	1.77	0.54	1.78	0.54	2.00	0.66	1.72	0.52
t		5.611***		5.560***		4.119***		2.266***		2.928***	

*** p<0,01, ** p<0,05, * p<0,1

■ 개인발달 - 사회/정서/역량 발달 - 협동의식

- 사회·정서·역량 발달 중영역 중 협동의식은 협동심으로 측정되며, 집단축진·팔로워십·갈등문제해결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됨. 점수가 높을수록 협동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
- 전체적으로 협동심(전체) 평균은 2.79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팔로워십(2.84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갈등문제해결(2.79점), 집단축진(2.76점) 순으로 조사됨

표 9 협동심

구분	n	협동심(전체)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M	SD	M	SD	M	SD	M	SD
전체	4,196	2.79	0.53	2.76	0.55	2.84	0.64	2.79	0.57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79	0.52	2.76	0.54	2.85	0.62	2.78	0.56
중1 코호트	2,073	2.79	0.54	2.75	0.56	2.84	0.65	2.80	0.58
t		-0.222		0.214		0.365		-1.073	

*** p<0,01, ** p<0,05, * p<0,1

■ 개인발달 - 비행 - 현실비행, 사이버비행

- 비행 중영역은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으며, 지난 1년간 해당 행동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경우를 '경험 있음(1)',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없음(0)'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산출함⁴⁾
- 코호트별로 보면, 현실비행의 경우 중1 코호트(0.56)가 초4 코호트(0.14)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1), 사이버비행은 초4 코호트(0.17)와 중1 코호트(0.19)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1)

4) 0과 1의 이분형으로 구성된 비행 경험 유무 변수에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여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 확률 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을 사용함.

표 10 현실비행 및 사이버비행 경험 유무

구분	n	현실비행		사이버비행	
		M	SD	M	SD
전체	4,196	0.34	0.48	0.18	0.38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0.14	0.34	0.17	0.38
중1 코호트	2,073	0.56	0.50	0.19	0.39
t		-31.836***		-1.486	

*** p<0.01, ** p<0.05, * p<0.1

■ 발달환경 - 매체 - 스마트폰

- 발달환경 대영역 중 매체 중영역의 스마트폰 소영역에서는 '스마트폰 의존도'를 측정하며,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는 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전체 스마트폰 의존도 평균은 2.15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내성(2.36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일상생활 장애(2.17점), 금단(2.08점), 가상세계 지향성(1.86점) 순으로 조사됨
- 코호트별로는 초4 코호트(2.20점)가 중1 코호트(2.10점)보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모든 하위요인(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p<0.01)를 보임

표 11 스마트폰 의존도

구분	n	스마트폰 의존도(전체)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4,182	2.15	0.42	2.17	0.51	1.86	0.60	2.08	0.52	2.36	0.55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13	2.20	0.42	2.25	0.51	1.89	0.60	2.10	0.52	2.39	0.56
중1 코호트	2,070	2.10	0.42	2.08	0.49	1.83	0.60	2.06	0.52	2.32	0.53
t		7.677***		11.380***		3.313***		2.933***		4.566***	

*** p<0.01, ** p<0.05, * p<0.1

■ 발달환경 - 학교 - 학교생활

- 발달환경 대영역 중 학교 중영역의 학교생활 소영역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측정하며, 개인발달 영역의 주관적 성적 수준과 학교성적 만족도 역시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함께 분석함
- 조사 결과, 세 항목 모두에서 초4 코호트보다 중1 코호트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p<0.01). 주관적 성적 수준은 초4 코호트 3.19점, 중1 코호트 3.46점으로 조사되었으며, 학교성적 만족도(초4 3.15점 → 중1 3.46점), 학교생활 만족도(초4 3.61점 → 중1 3.74점)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됨

표 12 주관적 성적 수준, 학교성적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구분	주관적 성적 수준		학교성적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M	SD	M	SD	M	SD
전체	3,30	0,74	3,28	0,81	3,67	0,73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3,19	0,72	3,15	0,81	3,61	0,74
중1 코호트	3,46	0,74	3,46	0,77	3,74	0,71
t	-10,743***		-11,621***		-5,409***	

주) 주관적 성적 수준, 학교성적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응답 중 '잘 모르겠음'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n: 전체(주관적 성적 수준 - 3,599 / 학교성적 만족도 - 3,633 / 학교생활 만족도 - 3,651)

초4 코호트(주관적 성적 수준 - 2,098 / 학교성적 만족도 - 2,102 / 학교생활 만족도 - 2,110)

중1 코호트(주관적 성적 수준 - 1,500 / 학교성적 만족도 - 1,531 / 학교생활 만족도 - 1,541)

*** p<0,01, ** p<0,05, * p<0,1

■ 발달환경 - 가정 - 양육태도

- 가정의 양육태도는 따스함·거부·자율성지지·강요·구조제공·비일관성의 6개 하위요인으로 측정되며, 긍정적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는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관계를, 부정적 양육태도(거부, 강요, 비일관성)는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적이거나 불안정한 관계를 의미함
- 조사 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초4 코호트가 중1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음($p<0,05\sim 0,01$). 이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초4 코호트가 성인기에 진입한 중1 코호트보다 부모와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하위요인별로 보면, 초4 코호트는 따스함(3,10점), 자율성지지(2,97점), 구조제공(2,74점) 등 긍정적 요인뿐 아니라, 거부(1,95점), 강요(2,18점), 비일관성(2,07점) 등 부정적 요인에서도 중1 코호트(각각 1,84점, 2,05점, 1,9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음($p<0,05\sim 0,01$). 이는 초4 코호트가 부모의 다양한 양육 행동을 보다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부모-자녀 관계의 정서적 밀도가 완화된 발달적 변화를 반영함

표 13 양육태도

구분	n	따스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4,196	3,08	0,59	1,90	0,60	2,96	0,63	2,12	0,55	2,73	0,58	2,02	0,55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3,10	0,59	1,95	0,63	2,97	0,61	2,18	0,56	2,74	0,56	2,07	0,56
중1 코호트	2,073	3,06	0,60	1,84	0,57	2,96	0,64	2,05	0,54	2,72	0,60	1,96	0,54
t		2,448**		6,098**		0,323***		7,266***		1,332		6,379***	

*** p<0,01, ** p<0,05, * p<0,1

■ 결혼/출산관

- 결혼관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5단계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52.0%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응답해 결혼을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이어서 ‘하는 것이 좋다’(36.0%), ‘하지 않는 것이 좋다’(8.5%)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8%,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코호트별로는 초4 코호트에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54.4%)가 가장 많았고, 중1 코호트에서는 ‘하는 것이 좋다’(38.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두 코호트 간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 모두에서 남학생은 ‘하는 것이 좋다’ 및 ‘반드시 해야 한다’ 응답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및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비율이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이러한 성별 차이는 두 코호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표 14 결혼관

구분	n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해야 한다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전체	4,196	33	0.8	355	8.5	2,181	52.0	1,509	36.0	118	2.8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0	1.0	180	8.5	1,156	54.4	709	33.4	58	2.7
중1 코호트	2,073	13	0.6	175	8.4	1,025	49.5	800	38.6	60	2.9
F		2,407**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10	0.9	66	6.1	556	50.9	420	38.4	41	3.7
여자	1,031	11	1.0	114	11.0	600	58.2	289	28.0	17	1.7
F		8,767***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5	3	0.3	73	6.8	513	47.7	446	41.5	40	3.7
여자	998	10	1.0	102	10.2	513	51.4	354	35.4	20	2.0
F		4,305***									

주) F는 Design-based F 통계량으로 코호트/성별 간 분포의 차이에 대한 설계기반 카이제곱검정 결과임

*** p<0.01, ** p<0.05, * p<0.1

- 출산관은 “귀하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5단계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51.2%가 ‘낳아도 좋고, 낳지 않아도 좋다’라고 응답하여 출산을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이어 ‘낳는 것이 좋다’(31.3%), ‘낳지 않는 것이 좋다’(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드시 낳아야 한다’(3.0%)와 ‘낳지 말아야 한다’(1.3%)는 응답은 매우 낮음
- 코호트별로는 초4 코호트에서 ‘낳아도 좋고, 낳지 않아도 좋다’(53.6%)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1

코호트에서는 '낳는 것이 좋다'(33.7%)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두 코호트 간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 모두에서 남학생은 '낳는 것이 좋다' 및 '반드시 낳아야 한다' 응답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낳지 않는 것이 좋다' 및 '낳아도 좋고, 낳지 않아도 좋다'의 비율이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함. 이러한 성별 차이는 두 코호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됨

표 15 출산관

구분	n	낳지 말아야 한다		낳지 않는 것이 좋다		낳아도 좋고, 낳지 않아도 좋다		낳는 것이 좋다		반드시 낳아야 한다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전체	4,196	54	1.3	555	13.2	2,150	51.2	1,314	31.3	124	3.0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9	1.4	269	12.7	1,139	53.6	615	29.0	71	3.3
중1 코호트	2,073	24	1.2	286	13.8	1,011	48.8	699	33.7	53	2.5
F		2,726**									
초4 코호트 성별											
남자	1,092	12	1.1	101	9.2	550	50.3	381	34.9	49	4.5
여자	1,031	17	1.7	168	16.3	589	57.1	234	22.7	22	2.2
F		11,344***									
중1 코호트 성별											
남자	1,075	6	0.6	115	10.7	502	46.7	416	38.7	36	3.4
여자	998	18	1.8	171	17.2	509	51.0	283	28.4	17	1.7
F		7,870***									

주) F는 Design-based F 통계량으로 코호트/성별 간 분포의 차이에 대한 설계기반 카이제곱검정 결과임

*** p<0.01, ** p<0.05, * p<0.1

■ 시간 선호

- 시간 선호는 개인이 보상의 시점(time frame)에 따라 선택을 어떻게 달리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Thaler(1981)의 설계에 기반하여 구성됨. 패널은 동일한 금액(4,000원)을 '다음 주 목요일'에 받는 경우와 '4주 뒤' 또는 '8주 뒤 목요일'에 더 큰 금액(4,500원, 5,500원, 6,500원)을 받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기 선택(time frame 1)과 장기 선택(time frame 2) 간의 응답 일관성을 비교함
- 두 시점(time frame 1과 2)의 선택 조합에 따라 응답자는 현재 편향(present bias), 정상성(time consistency), 미래 편향(future bias)으로 분류되었으며, 비일관적 선택자(inconsistent choosers)는 분석에서 제외함. 현재 편향은 즉시 보상을 선호하는 성향, 정상성은 시점에 관계없이 일관된 선택을 유지하는 합리적 성향, 미래 편향은 지연된 보상을 더 높게 평가하는 성향을 의미함
-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정상성이 7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미래 편향이 19.3%, 현재 편향이 10.3% 순으로 나타남. 코호트별로는 초4 코호트(현재 편향 10.4%, 정상성 70.3%, 미래 편향 19.3%)와 중1 코호트(현재 편향

10.2%, 정상성 70.5%, 미래 편향 19.3%)가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여, 두 코호트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청소년기(고등학교 1학년)와 성인기 초입(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두 코호트 모두 시간 선택에서 높은 일관성과 합리성을 보이며, 즉각적 보상보다 계획적 · 지연된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달 단계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시사함

표 16 시간 선호

구분	n	현재 편향		정상성		미래 편향	
		freq	%	freq	%	freq	%
전체	3,929	405	10.3	2,766	70.4	758	19.3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1,998	208	10.4	1,404	70.3	385	19.3
중1 코호트	1,931	197	10.2	1,362	70.5	373	19.3
F		0.014					

주) F는 Design-based F 통계량으로 코호트/성별 간 분포의 차이에 대한 설계기반 카이제곱검정 결과임

*** p<0.01, ** p<0.05, * p<0.1

■ 용서하는 성향

- 용서하는 성향은 개인이 자신, 타인, 그리고 상황에 대해 부정적 경험이나 실수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영역으로, 총 1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 · 타인 · 상황을 용서하는 성향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분됨.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역코딩 문항은 역코딩 처리 후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 전체 평균은 2.66점으로 나타났으며, 코호트별로는 초4 코호트 2.65점, 중1 코호트 2.68점으로 중1 코호트의 용서 수준이 초4 코호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p<0.01)
- 하위요인별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어, 자신을 용서하는 성향(p<0.01), 타인을 용서하는 성향(p<0.05), 상황을 용서하는 성향(p<0.01) 모두에서 중1 코호트가 초4 코호트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음.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경험이나 타인 · 상황에 대한 수용 능력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표 17 용서하는 성향

구분	n	용서하는 성향 (전체)		자신을 용서하는 성향		타인을 용서하는 성향		상황을 용서하는 성향	
		M	SD	M	SD	M	SD	M	SD
전체	4,196	2.66	0.29	2.70	0.38	2.62	0.35	2.68	0.35
전체 코호트별									
초4 코호트	2,123	2.65	0.28	2.68	0.37	2.61	0.35	2.65	0.35
중1 코호트	2,073	2.68	0.29	2.72	0.38	2.63	0.36	2.70	0.34
t		-4.248***		-3.094***		-2.195**		-4.947***	

*** p<0.01, ** p<0.05, * p<0.1

■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활용실적과 주요 키워드

● 데이터 활용실적

- 2004년부터 공개된 KYPs 2003, 2011년부터 공개된 KCYPs 2010, 2019년부터 공개된 KCYPs 2018의 데이터 활용 실적을 종합한 결과, 2025년 9월 기준 총 4,419편의 논문 및 보고서에서 패널데이터가 활용된 것으로 파악됨
- 데이터 이용실적은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인터넷 학술검색 기반으로 집계된 수치이므로, 실제 활용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향후에도 데이터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 및 정책 분야에서의 데이터 접근성과 확산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표 18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이용실적

구분 편수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계		4,419	100.0	1,141	100.0	2,100	100.0	1,178	100.0
학위 논문	박사	167	3.8	46	4.0	90	4.3	31	2.6
	석사	627	14.2	133	11.7	331	15.8	163	13.8
학술지 논문		2,757	62.4	710	62.2	1,287	61.3	760	64.5
학술대회 발표논문		712	16.1	202	17.7	306	14.6	204	17.3
보고서/단행본		156	3.5	50	4.4	86	4.1	20	1.7

*2025년 9월 기준 집계치임.

● 데이터 활용 실적의 주요 키워드

- 패널데이터 이용실적의 키워드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는 문제행동 중심 → 관계 · 적응 중심 → 역량 · 회복 중심으로 변화해 왔으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발달 연구의 초점이 확장되어 왔음
- 제1기(KYPs 2003)는 비행,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등이 중심 키워드로, 청소년 문제행동과 심리적 위험요인 분석이 주를 이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비행이 핵심 노드로,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가족 등과 연결되어 비행 예방과 보호요인 강화 중심의 연구 구조를 형성함
- 제2기(KCYPs 2010)는 휴대전화(스마트폰), 우울, 학교생활적응, 또래애착 등이 상위권으로, 디지털 환경과 관계적 요인이 연구의 중심으로 확장됨. 네트워크에서는 스마트폰 의존-우울-공격성-학교적응의 연결이 뚜렷해 미디어 사용이 정서, 행동,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됨
- 제3기(KCYPs 2018)는 휴대전화, 의존, 그릿(Grit), 양육태도, 자아존중감이 주요 키워드로, 디지털 의존과 긍정심리학적 요인의 결합이 특징적임. 네트워크에서는 그릿-자아존중감-우울-스마트폰 의존의 구조가 나타나 자기조절력, 회복탄력성과 디지털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탐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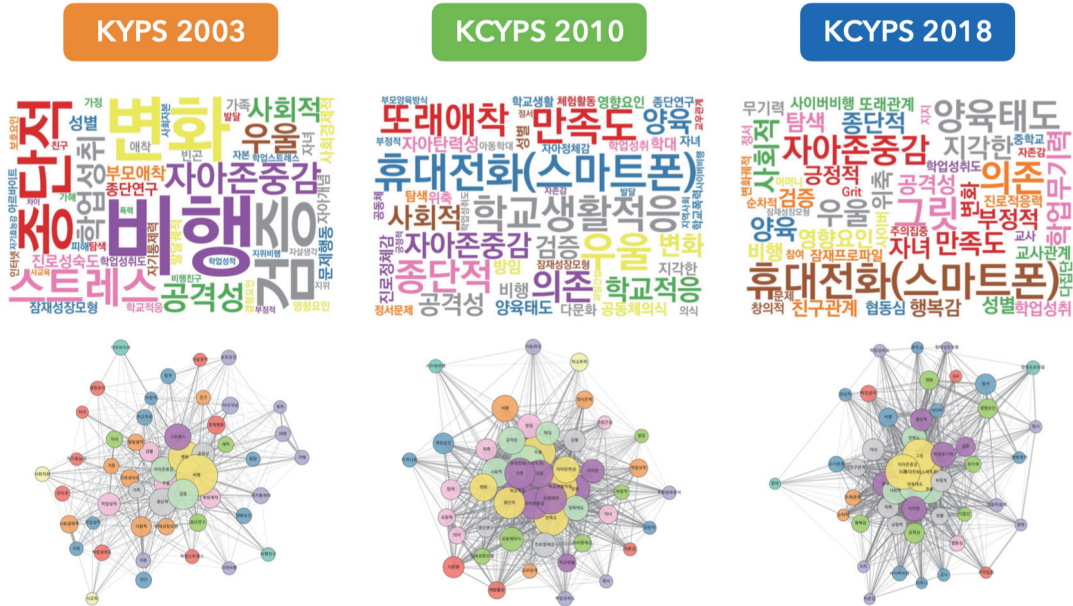


그림 2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개별 데이터 이용 실적 주요 키워드

